

# 광주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설사 몰려온다

### 신가동 현장설명회 12개, 우산구역 8개 건설사 참여

### 사업 규모 커 컨소시엄 구성 치열한 수주 경쟁 예상

부동산 분양시장 활황세를 타고 광주에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대형 주택건설사들이 광주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을 이유로 광주지사를 폐쇄하거나 축소하던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아파트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1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신가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9일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30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12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호황을 이뤘다.

참여사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양, 금호산업, 반도건설, 이수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으로, 대형 주택건설사 대부분이 현장에 찾았다.

신가동 주택 재개발은 광산구 신가동 842-6번지 일대에 아파트 4030가구(임대 416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예상 공사금액만 7500억원에 이른다. 이 일대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이미 갖춰진데다 주변의 교통환경도 좋아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컨소시엄을 통한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

10일 열린 우산구역 재개발 시공사 현장 설명회도 분위기가 뜨거웠다. 이날 현장엔 효성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삼호 등 8개사가 참여했다.

우산동 470번지 일대에 아파트 2500가구 정도를 신축하는 우산구역 재개발은 예상공사금액이 5000억원이다.

당장 22일 입찰을 앞둔 영주주공 재건축 사업도 대형 건설사들의 가세로 물밀결 경쟁이 치열하다. 재건축을 놓고 사업방식을 최근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한 뒤 건설사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다. 영주주공의 재건축 규모는 아파트 194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다.

광주의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많아 지역 건설

사는 물론 1군 업체까지 달려드는 분위기”라며 “타 도시에 비해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적은 편이었는데, 재개발 사업을 발판삼아 대형 업체들이 꾸준히 밀려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은 모두 48곳에 이른다.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잇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이 가운데 30곳으로, 구도심인 동구가 14곳으로 가장 많다.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 각각 3곳 그리고 북구에는 7곳이 있다.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은 18곳이다. 남구가 봉선리인광장과 라인하이츠 등을 비롯, 11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구 5곳, 북구·광산구가 각각 1곳씩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달 출시한 ‘1st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광주은행카드 사상 최단기간에 1만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1st카드’는 JB금융그룹 공동 기획 상품으로, 지난달 28일 출시 이후 영업일수로 13일만인 지난 15일 가입 1만좌를 넘어섰다. ‘1st카드’의 이 같은 인기는 모든 이용금액의 0.5%를 캐시백 또는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특히,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직접 선택하면 이용금액의 최대 2%까지 캐시백을 지급해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은행 카드사업부 박정민 부장은 “1st카드를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객이 지급에서 항상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광주은행카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카드사업부 박정민 부장은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4.86 (+6.14)
- ▲ 금리 (국고채 3년) 1.80% (+0.03)
- ▲ 코스닥 718.61 (+12.33)
- ▼ 환율 (USD) 1117.90원 (-0.70)

## 광주은행 ‘1st카드’ 인기 ... 최단기간 1만좌 돌파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달 출시한 ‘1st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광주은행카드 사상 최단기간에 1만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1st카드’는 JB금융그룹 공동 기획 상품으로, 지난달 28일 출시 이후 영업일수로 13일만인 지난 15일 가입 1만좌를 넘어섰다. ‘1st카드’의 이 같은 인기는 모든 이용금액의 0.5%를 캐시백 또는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특히,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직접 선택하면 이용금액의 최대 2%까지 캐시백을 지급해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은행 카드사업부 박정민 부장은

“1st카드를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객이 지급에서 항상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광주은행카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개장식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이 17일 개장식을 갖고 영업을 본격화했다. 운영자인 (주)국민산업 유통시 회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새롭게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800만원 ‘눈 앞’

5월 기준 787만7000원

작년보다 35만3000원 ↑

광주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1평)당 8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주택보증에 내놓은 ‘2015년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78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5만3000원(4.7%) 상승했다. 3.3㎡당 분양가격지수(2012=100)는 115.7로 1년 전보다 4.7% 올랐다. 광주의 분양가는 지난해 5월 3.3㎡당 750만원 대에 올라선 뒤 상승세를 이어가며 800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전남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05만원으로 전월보다 11만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9만4000원, 비율로는 6.9% 증가했다. 광양과 나주, 여수, 화순 등지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

규 분양이 속속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 시 단위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600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세종을 포함, 17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서울(1836만원)에 비해서는 3분의 1수준이다.

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862만4000원, 수도권은 1320만1000원, 6개 광역시는 896만7000원, 9개 도 평균은 69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신보, 매출채권보험 대상 확대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매출채권보험의 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보험가입이 가능해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일부 업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에 한정됐다. 이번 계약자 업종 확대로 사실상 전 업종의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전, 중기육성펀드에 250억 출자

### 중기청·벤처투자자와 협약

한국전력이 강소(強小)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자와 ‘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펀드 출자’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자에 25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자는 여기에 민간투자자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출자받아 총 3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한 뒤 전력·에너지산업 분야 강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한 중소기업에 구매 의사를 먼저 밝힌 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협력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 제품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삼성전자 SUHD TV 1만대 판매

삼성전자는 17일 SUHD TV가 국내 출시 3개월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SUHD TV는 독자 개발한 ‘나노 크리스탈’ 기술을 적용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자연 그대로의 컬러를 즐길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제공>

당신의 광장/결정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슬준

시슬후

시슬준

시슬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스(주)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